

지금도 높은데…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상 가능성에 ‘난색’

카드 News

KB국민카드, 명절계획 설문조사 명절음식 준비 68% 용돈·선물계획 91%

KB국민카드가 고객패널인 '이지토커'를 대상으로 명절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부모님 용돈 평균 10만~30만원

KB국민카드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일정, 선물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응답자의 64%는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묘와 차례 등을 지내는 응답자는 45%다. 휴식 및 해외여행은 각각 40%, 23%를 차지했다.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가정은 68%며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0%로 집계됐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로는 '추석 차례 상차림을 위해서'는 39%, '성묘를 가기 위해서'가 6%다.

추석을 맞이해 용돈이나 선물 준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91%다. 이중 용돈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78%로 선물인 43%보다 높게 나타났다. 74%의 응답자가 10~30만원 내로 용돈을 준비했다.

신한카드

스노보드 국대 선수 이채운·최가온 후원

신한카드가 대한민국 스노보드 대표 선수들의 금메달을 응원한다.

◆ “국민들에게 행복 선사할 것”

신한카드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채운, 최가온 선수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채운 선수는 2006년생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국가대표로 지난 2022년 제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표팀으로 선발됐다.

최가온 선수는 2008년생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국가대표로 2022년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위를 차지했다.

현대카드

시스템 고도화 위해 30일 일부 결제 중지

현대카드가 시스템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30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착수

현대카드는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오는 30일 자정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일부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승인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 모든 온라인 결제, 앱카드 결제, 간편결제 및 오프라인 결제 이용을 제한한다. 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200만원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정선 기자

저축銀 예보료율 0.4% 업계 최다
7월기준 0.1%p 오르면 1171억 부담

예금자보호한도 따라 조정 불가피
한도액 수요 낮아 소폭조절 예상

저축은행권이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확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보료율이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일종의 보험금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사가운데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다. 예금주가 5000만원을 예금하면 저축은행은 20만원을 예보료율로 지급한다. 저축은행 다음으로 예보료를 많이 내는 곳은 보험사와 금융투자사, 종합금융회사다. 0.15%를 부담한다. 은행권은 0.08%를 지급해 업계에서 가장 낮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보료율 변동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보료율 인상 카드를 빼들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월 저축은행이 조달한자금은 117조1964억원이다. 0.1%



예금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으로 저축은행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뉴시스

포인트(p)만 오르더라도 1171억원을 더 부담한다. 올해 업권에 걸쳐 수익성 반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고금리 예금 등을 출시하기 어려우며 대출금리 인상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보료율이 함께 상승한다면 현행 유지가 낫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권은 그간 꾸준히 예보료를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저

축은행 사태 후 예보료율이 0.05%p 오른 뒤 단 한차례의 조정안도 나오지 않았다. 유동성과 건전성 모두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수치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조정안을 논의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예보기금을 내는 모든 금융사의 관심일 것”이라며 “사실상 업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보 측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따른 예보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던 의견이다. 예보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목표기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누적수익률 최고 204%

Advertorial Corner

올 1분기 펀드 운용 호실적 거둬
수익률 상위 10개 중 5~9개 차지

미래에셋생명이 올 1분기 펀드 운용에서 호실적을 거뒀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펀드가 해외투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전 부문에서 누적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부문별 누적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들 중 5~9

개가 미래에셋생명 펀드다. ‘아시아주식형 펀드’는 인도 등 아시아지역 내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에 투자한다. 누적수익률 204.77%를 기록했다.

‘글로벌 컨슈머 섹터 주식안정 성장 자산 배분형 펀드’는 해외주식혼합형 펀드 중 기간수익률 18.22%, 누적 수익률 102.73%로 1위를 기록했다. 세계 브랜드, 혁신 기술의 발전, 신흥국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 수혜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강점은 포트폴리오다. 변액보험 자산의 75%를 해외자산에 투자한다. 평균

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비례해 예보료율을 올릴지는 확실치 않다. 예보료율은 다수의 예금주가 분포한 예금액구간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현재 전 금융권에 걸쳐 상당수의 예금주가 예치한 돈은 5000만원 미만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도 조정된 한도액을 맡길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보료율이 0.8%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료율은 두고 금융사와 조율할 수 없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예보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특정업권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은 다수의 예금주가 분포한 금액대에 따라 결정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도 1억원을 예치할 예금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보료율도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해외주식형펀드 누적수익률 톱 10〉

8월31일 기준, 총자산규모30조 이상 생보사, 단위 %

보험사명	펀드명	수익률
미래에셋생명	아시아주식형	204.77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성장주식형	195.96
미래에셋생명	글로벌베이지스주식형	192.89
미래에셋생명	해외성장형	190.27
삼성생명	미국블루칩인덱스주식형	174.74
미래에셋생명	선진마켓주식형	171.74
미래에셋생명	친디아주식형	141.72
삼성생명	더블유인덱스주식형	133.14
삼성생명	더블유인덱스주식형	127.93
신한라이프	미국주식형Ⅱ	123.77

“투심 살려라”… 가상자산거래소, 반감기 대비 서비스개편 분주

코인원 ‘빠른주문’, ‘호가창’ 탑재
코빗 ‘패스워드리스’로 지문 접속
업비트 ‘실헴실’ 통해 손익 보기
빗썸 거래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기 위해 서비스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 전환과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고객 유입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2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2100만원)대비 73.8% 상승해 36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대비 상승률만 놓고 보면 가파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4월(5700만원)과 비교하면 56.1% 하락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은 위축된 투심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과 서비스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20일 코인원 애플리케이션(앱)에 ‘빠른 주문’과 앱 ‘호가창’ 주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설된 ‘빠른 주문’은 자주 사용하는 주문 조건을 모아 선택 한 번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거래 시 주문 방식과 수량, 금액 등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호가창에서는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코빗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패스워드리스’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 이메일 인증 방식이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한 조치로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웹에서는 QR코드 스캔, 휴대전화 앱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6자리 간편비밀번호 또는 페이스 아이디, 지문으로 접속 가능하다.

업비트는 ‘실헴실’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실헴실을 통해 ‘투자손익 보기’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원하는 기간의 누적 수익률, 평균 투자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투자손익 보기는 업비트 이용자가 가장 많은 출시를 요청한 기능으로 3가지 수익률(▲단순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금액가중수익률)을 지원한다.

빗썸 역시 매매 동향과 다양한 투자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래데이터 분석 서비스 페이지 ‘인사이트’를 선보였다. 회원들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의 소

설 트레이딩 서비스다.

빗썸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편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처럼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크립토윈터 극복과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장을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치가 상승한다.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공급을 줄여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우선적으로 고객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거래소들의 서비스 개편은 반감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서비스 개편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